

## 보호경찰관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전우택\*\*\* · 윤덕용\*\*\* · 민성길\*\*

### An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 Supporting Experience of South Korean Policemen in Charge

Woo Taek Jeon, M.D.,\*\*† Duk Ryong Yoon, M.D.,\*\*\* Sung-Kil Min, M.D.\*\*

#### 국문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남한에 들어와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 지원 및 신변보호를 2년간 담당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활동 속에서 경험한 지원상의 어려움, 인간 관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할 경찰관들과 자원봉사자들, 관련 공무원들의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방 법 :

과거 탈북자 보호 업무를 2년간 담당하였던 전국의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결 과 :

총 172명의 경찰관이 설문에 답하였다. 탈북자들의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인간관계 평균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인민학교 출신 탈북자들은 유일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인간관계 유형도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왔다. 탈북 경로에 있어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러시아, 중국 등을 경유하여 들어온 사람들보다 인간관계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좋게 나왔다. 경찰관들의 연령대에 따른 인간관계 평균점수의 차이는 없었으나 관계 유형에는 차이가 있었다. 경찰관들이 탈북자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을 하려고 나섰을 경우보다 교육행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인간관계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좋게 나왔다. 적응 초기에는 불안과 불신, 사회 부적응 등이 인간 관계에 문제가 되었으나 후기에는 자립의지 부족, 이기주의, 돌출행동 등이 문제가 되었다.

##### 결 론 :

본 연구는 보호경찰관들과 탈북자들간의 인간관계가 그들의 인구학적 특징, 탈출 경로 등에 따라 다르

접수일자 : 2000년 10월 2일

심사완료 : 2000년 12월 19일

\*본 논문은 1999년 12월 8일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있었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 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음.

\*\*본 논문은 1999년도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The Institute for Korean Unification Studies, Seoul

†Corresponding author

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간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의 방법이나 지원 방법에 따라 인간관계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다. 이것은 탈북자들을 지원함에 있어 과학적인 지침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중심 단어 :** 탈북자·경찰관·사회적응.

## 서 론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들어오는 북한 탈북자들의 숫자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그 총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sup>1)</sup> 50년 이상 다른 체제하에서 단절되어 살아온 남북한 사람들의 이질화 문제가 통일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은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한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 과정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sup>2-10)</sup>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탈북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연구라는 것이다. 즉 연구자들이 탈북자들과 직접 면담하거나 우편 설문 등을 통하여 탈북자들이 경험한 것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에는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즉 남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 탈북자들의 적응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의 탈북자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좀더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남한에 들어와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숫자가 아직까지 충분히 많지 않아 그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옆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남한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경험조차도 한두 번의 일시적인 만남 정도에 불과할 때가 대부분이어서 탈북자들의 적응을 직접,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남한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현재, 남한 사람으로서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보았던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법에

의하여 남한 정부가 배치한 탈북자 담당 보호경찰관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탈북자 한 명당 한 명씩 배치되어 탈북자들의 남한 생활 첫 2년 동안 신변 보호에서부터 사회 생활·적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경찰관들이 2년 동안 탈북자들을 지원하며 경험하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탈북자들의 적응 과정을 관찰하고 체험한 것도 있으나, 동시에 일대 일 관계에서 2년간을 보내었으므로 두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경험한 것도 있다. 특히 이러한 인간관계는 매우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면서도 경찰관의 탈북자 지원 업무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이질적인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어떤 인간관계를 체험하였는가는 통일 과정에서 전체 남북한 사람들이 경험할 내용을 부분적으로 상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경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간관계가 임무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탈북자 입장에서도 이 인간관계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남한 사회를 경험하게 된다. 탈북자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보호경찰관들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남한의 다양한 자원봉사자들과 관련 공무원들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보호경찰관들의 체험을 통하여 각 시기별로 지원상의 애로사항, 인간관계, 인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한 노력, 그 결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탈북자들의 보호지원 업무를 맡을 경찰관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를 마련한다.

둘째, 보호경찰관 이외에도 향후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정착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될 관련 공무원들과 시민 단체 사람들,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그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있을 수 있는 어려움 및 인간관계의 특성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좀더 효과적인 활

**Table 1.** Scores of human relationship according to defector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umber	Average score of relationship	F	P	Relationship score at each period(S.D.)		
					1-3 mo.	4-12 mo.	13-24 mo.
<b>Sex</b>							
Male	139	2.94(0.89)	3.229	N.S.	2.64(1.37)	2.85(1.06)	3.36(1.30)
Female	33	3.09(0.71)			2.64(1.29)	3.06(0.97)	3.58(1.03)
<b>Age(year)</b>							
10-19	5	3.86(0.60)	1.734	N.S.	3.20(1.10)	3.80(0.45)	4.60(0.89)
20-29	43	3.03(0.79)			2.23(1.25)	3.09(1.15)	3.77(1.04)
30-39	71	2.87(0.90)			2.86(1.41)	2.68(1.03)	3.08(1.36)
40-49	16	3.08(0.67)			2.88(1.02)	2.94(1.00)	3.44(1.09)
50-59	15	2.80(0.93)			2.13(1.60)	2.67(0.98)	3.60(1.06)
60-69	22	3.15(0.79)			2.91(1.27)	3.18(0.80)	3.36(1.22)
<b>Schooling</b>							
Elementary school	15	2.77(0.90)	0.474	N.S.	2.87(1.25)	2.80(0.86)	2.67(1.59)
Middle/high school	83	2.99(0.83)			2.59(1.38)	2.95(1.05)	3.43(1.17)
Junior college	22	3.16(1.06)			2.59(1.44)	3.23(1.15)	3.68(1.39)
College	46	2.95(0.76)			2.78(1.38)	2.65(1.02)	3.43(1.07)
Others	6	2.94(1.04)			2.17(0.75)	3.00(1.10)	3.67(1.51)
<b>Route of defection</b>							
Direct to south Korea	33	3.24(0.84)	1.377	N.S.	2.76(1.44)	3.18(1.16)	3.79(1.22)
via China	84	2.90(0.88)			2.67(1.42)	2.75(0.99)	3.30(1.24)
via Russia	23	2.78(0.95)			2.43(1.24)	2.83(1.11)	3.09(1.47)
via other countries	20	2.98(0.84)			2.35(1.35)	3.00(1.17)	3.60(1.27)
Other	14	3.11(0.36)			3.00(0.88)	3.00(0.55)	3.36(0.74)
<b>Religion</b>							
No religion	66	2.88(0.86)	1.558	N.S.	2.67(1.27)	2.82(0.93)	3.17(1.25)
Christianity	90	3.07(0.76)			2.68(1.36)	2.99(1.07)	3.57(1.19)
Catholic church	9	2.66(1.25)			2.33(1.66)	2.56(1.24)	3.11(1.54)
Buddhism	2	4.00(0.00)			3.00(0.00)	4.00(0.00)	5.00(0.00)
Other	5	2.83(1.55)			2.00(2.00)	2.50(1.73)	4.00(1.41)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탈북자들의 시각이 아닌, 남한 사람 입장에서 본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 양상과 그 어려움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대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한다.

## 방 법

본 연구에서는 과거 탈북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여 2년간의 활동을 완료한 전국의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1999년 10월 1일부터 1999년 10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러 명의 탈북자를 담당하였던 경찰관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담당할 탈북자와의 경험을 가

지고 응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설문지 배포와 회수에는 경찰청의 지원을 받았다. 본 설문 조사에 대한 응답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설문에서는, 과거 이루어진 탈북자들의 적응 연구를 토대로 하여,<sup>71)</sup> 이 기간을 첫 1~3개월(1기), 4~12개월(2기), 13~24개월(3기)의 세 기간으로 분류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설문지 내용은 각 기간별로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과 보호경찰관이 경험한 인간관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탈북자들의 인구학적 특징(성별, 연령, 학력, 탈출 경로, 남한에서 가지게 된 종교), 보호경찰관의 인구학적 특징(연령, 종교), 보호경찰관이 탈북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Table 2.** Types of human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efectors

Characteristics	Number	Average score of relationship(S.D.)	Number of each type of human relationship(%)				
			Improved type	Aggravated type	Little changed	Fixed type	Unstable type
<b>Sex</b>							
Male	139	2.94(0.89)	57(41.0)	22(15.8)	21(15.1)	18(12.9)	21(15.1)
Female	33	3.09(0.71)	15(45.5)	4(12.1)	6(18.2)	4(12.1)	4(12.1)
<b>Age(year)</b>							
10-19	5	3.86(0.60)	3(60.0)	0( 0.0)	0( 0.0)	1(20.0)	1(20.0)
20-29	43	3.03(0.79)	26(60.5)	3( 7.0)	8(18.6)	1( 2.3)	5(11.6)
30-39	71	2.87(0.90)	20(28.2)	16(22.5)	13(18.3)	9(12.7)	13(18.3)
40-49	16	3.08(0.67)	5(31.3)	3(18.8)	4(25.0)	2(12.5)	2(12.5)
50-59	15	2.80(0.93)	10(66.7)	0( 0.0)	1( 6.7)	2(13.3)	2(13.3)
60-69	22	3.15(0.79)	8(36.4)	4(18.2)	2( 9.1)	6(27.3)	2( 9.1)
<b>Schooling</b>							
Elementary school	15	2.77(0.90)	5(33.3)	6(40.0)	1( 6.7)	1( 6.7)	2(13.3)
Middle/high school	83	2.99(0.83)	33(39.8)	11(13.3)	19(22.9)	9(10.8)	11(13.3)
Junior college	22	3.16(1.06)	13(59.1)	2( 9.1)	3(13.6)	2( 9.1)	2( 9.1)
College	46	2.95(0.76)	17(37.0)	6(13.0)	5(10.9)	8(17.4)	10(21.7)
Others	6	2.94(1.04)	5(71.4)	0( 0.0)	0( 0.0)	2(28.6)	0( 0.0)
<b>Route of defection</b>							
Direct to South Korea	33	3.24(0.84)	18(54.5)	4(12.1)	0( 0.0)	7(21.2)	4(12.1)
via China	84	2.90(0.88)	36(42.9)	15(17.9)	17(20.2)	7( 8.3)	9(10.7)
via Russia	23	2.78(0.95)	6(26.1)	4(17.4)	6(26.1)	3(13.0)	4(17.4)
via other countries	20	2.98(0.84)	10(50.0)	2(10.0)	1( 5.0)	1( 5.0)	6(30.0)
Other	12	3.11(0.36)	3(21.4)	1( 7.1)	4(28.6)	4(28.6)	2(14.3)
<b>Religion</b>							
No religion	66	2.88(0.86)	23(34.8)	11(16.7)	12(18.2)	12(18.2)	8(12.1)
Christianity	90	3.07(0.76)	42(46.7)	13(14.4)	12(13.3)	6( 6.7)	17(18.9)
Catholic church	9	2.66(1.25)	3(33.3)	1(11.1)	2(22.2)	3(33.3)	0( 0.0)
Buddhism	2	4.00(0.00)	2(100)	0( 0.0)	0( 0.0)	0( 0.0)	0( 0.0)
Other	5	2.83(1.55)	2(50.0)	0( 0.0)	1(25.0)	1(25.0)	0( 0.0)

중점적으로 노력한 방법, 보호경찰관 입장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하며 가졌던 가장 큰 어려움의 내용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도록 하였다. 인간관계 평가는 가장 좋은 관계를 5점, 가장 나쁜 관계를 1점으로 하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에 따라 한 명의 응답에는 세 개의 기간당 한 점수씩, 총 3개의 인간관계 점수가 나왔다. 이것을 모두 더하여 평균값을 만든 것을 인간관계 평균 점수로 하였다. 그리고 이 3개 점수의 변화 양상을 가지고 인간관계 유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개로 구분하였는데 즉 호전형(인간 관계 점수가 2점 이상 호전한 경우), 악화형(관계 점수가 2점 이상 악화된 경우), 소변화형(관계 점수 변화가 1점인 경우), 고정형(관계 점수가 변하지 않은 경우), 불안정형(점수의 변화가 일정한

방향으로 있지 않았던 경우) 등이었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PC version 7.0을 이용하였고, 인간관계 점수 집단간 비교는 t-test와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에 대하여 LSD 통계 절차에 따른 사후검정(Post hoc test)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p < 0.05$ 로 정하였다.

## 결 과

본 설문에 응한 경찰관 중 2년 전체에 대한 탈북자 지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172명이었다. 그러나 응답 내용 중 몇 개 항목에는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Table 3.** Score of Human relationship according to policemen'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umber	Average score of relationship	F	p	Relationship score at each period(S.D.)		
					1-3 mo.	4-12 mo.	13-24 mo.
<b>Age(years)</b>							
30-39	27	3.08(0.82)	0.959	N.S.	2.81(1.33)	2.81(1.08)	3.63(1.18)
40-49	90	3.02(0.87)			2.79(1.40)	2.96(1.02)	3.32(1.28)
50-59	54	2.84(0.87)			2.30(1.25)	2.80(1.09)	3.44(1.25)
<b>Religion</b>							
No religion	59	3.00(0.85)	0.516	N.S.	2.76(1.43)	2.88(1.04)	3.36(1.32)
Christianity	41	2.86(0.98)			2.80(1.50)	2.66(1.11)	3.12(1.27)
Catholic church	18	2.90(0.69)			2.44(1.04)	2.89(0.96)	3.39(1.04)
Buddhism	45	3.11(0.82)			2.53(1.20)	3.09(1.02)	3.71(1.16)
Others	6	3.11(0.95)			2.17(1.60)	3.17(1.17)	4.00(1.55)
<b>Means policemen tried to improve the human relationship with defectors*</b>							
Human kindness	86	2.98(0.87)	0.640	N.S.	2.52(1.22)	2.93(1.11)	3.49(1.22)
Frequent conversation	27	3.14(0.72)			3.00(1.33)	2.93(0.87)	3.52(1.22)
Problem solving	18	2.62(0.98)			2.50(1.65)	2.61(1.04)	2.78(1.26)
Furnishing information	16	3.18(0.88)			2.81(1.56)	3.19(0.98)	3.56(1.21)
Financial support	14	2.90(0.73)			2.64(1.45)	2.79(1.05)	3.29(1.38)
Others	4	2.75(0.95)			2.00(1.15)	2.75(0.96)	3.50(1.91)

\*human kindness(인간적 접근) frequent conversation( 잦은 대화접촉)  
 problem solving(애로사항 해결) furnishing information(담한적응 교육)  
 others(기타)

각 항목별로 총 응답자 수가 172명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의 설문 자료 모으는 것을 도와주었던 경찰청에서는 전체 설문 조사 대상 숫자를 보안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설문 응답률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전체 탈북자들의 숫자와 그 동안 2년간 보호받은 탈북자들의 숫자를 고려해 볼 때, 응답률이 매우 높았음을 시사한다.

**1. 탈북자들의 인구학적 특징과 인간관계**

이들 172명에 대한 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분포와 그에 따른 인간 관계 평균 점수 및 각 기간별 점수가(표 1)에, 유형의 분포가(표 2)에 나와 있다.

탈북자를 성별에 따라 나누면 남자가 139명(80.8%), 여자는 33명(29.2%)이었다. 담당 보호경찰관들과의 관계 평점에 있어서 성별차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3.299, p=0.71). 그리고 탈북자의 연령대에 따른 담당 경찰관과의 인간관계 평점을 보면 10대에서 60대까지 6개의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1.734, p=0.129). 탈북자의 학력과 인간관계 평점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0.474, p=0.755). 기간별 점수로 보았을 때,

인민학교 출신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인간관계 점수가 점점 더 나빠지는 유일한 집단으로 나타나, 다른 학력자들과 뚜렷하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들어온 경로와 관계 평점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1.337, p=0.258). 그러나 남한에 직접 들어온 사람들은 중국(p<0.046), 러시아(p<0.042)를 경유하여 들어온 사람들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인간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에서 직접 들어온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뚜렷한 호전을 보인 반면에 중국이나 러시아를 경유하여 들어온 사람들은 1기와 2기 사이의 점수 차가 크지 않아, 이들의 인간 관계 호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였다. 러시아와 중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여 들어온 사람들은 관계 유형에서 불안정형이 가장 높았고(30.0%), 1기의 점수(2.35)도 가장 낮게 나타나 이들이 입국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가지게 된 종교에 대하여 가장 큰 숫자군인 무교와 개신교를 비교하여 보면, 1기, 2기의 점수에서는 두 군간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3기 점수에 있어서 개신교(3.57)가 무교(3.

**Table 4.** Types of human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olicemen

Characteristics	Number	Average score of relationship (S.D.)	Number of each type of human relationship(%)				
			Improved type	Aggravated type	Little changed	Fixed type	Unstable type
<b>Age(years)</b>							
30 - 39	27	3.08(0.82)	12(44.4)	3(11.1)	2( 7.4)	4(14.8)	6(22.2)
40 - 49	90	3.02(0.87)	33(36.7)	18(20.0)	17(18.9)	11(12.2)	11(12.2)
50 - 59	54	2.84(0.87)	27(50.0)	4( 7.4)	9(16.7)	6(11.1)	8(14.8)
<b>Religion</b>							
No religion	59	3.00(0.85)	22(37.3)	12(20.3)	14(23.7)	6(10.2)	5( 8.5)
Christianity	41	2.86(0.98)	11(26.8)	7(17.1)	5(12.2)	7(17.1)	11(26.8)
Catholic church	18	2.90(0.69)	9(50.0)	2(11.1)	3(16.7)	2(11.1)	2(11.1)
Buddhism	45	3.11(0.82)	25(55.6)	4( 8.9)	5(11.1)	5(11.1)	6(13.3)
Others	6	3.11(0.95)	4(66.7)	0( 0.0)	0( 0.0)	1(16.7)	1(16.7)
<b>Means policemen tried to improve the human relationship with defectors</b>							
Human kindness(인간적 접근)	86	2.98(0.87)	38(44.2)	9(10.5)	17(19.8)	11(12.8)	11(12.8)
Frequent conversation(잦은 대화접촉)	27	3.14(0.72)	11(40.7)	4(14.8)	3(11.1)	3(11.1)	6(22.2)
Problem solving(에로사항 해결)	18	2.62(0.98)	5(27.8)	4(22.2)	6(33.3)	1( 5.6)	2(11.1)
Furnishing information(남한적응 교육)	16	3.18(0.88)	8(50.0)	3(18.8)	1( 6.3)	3(18.8)	1( 6.3)
Financial support(경제적 도움)	14	2.90(0.73)	6(42.9)	4(28.6)	0( 0.0)	2(14.3)	2(14.3)
Others(기타)	5	2.75(0.95)	3(60.0)	1(20.0)	0( 0.0)	1(20.0)	0( 0.0)

**Table 5.** Average score of human relationship

Ages of defectors(yeaes)	Age of policemen(years)					
	30 - 39		40 - 49		50 - 59	
	Number	Score(SD)	Number	Score(SD)	Number	Score(SD)
10 - 19	3	3.78(0.84)	2	4.00(0.00)	0	- (0.00)
20 - 29	11	3.00(0.86)	17	3.12(0.74)	14	2.93(0.89)
30 - 39	10	2.87(0.82)	41	3.03(0.92)	19	2.53(0.87)
40 - 49	1	3.33(0.00)	11	3.00(0.70)	4	3.25(0.74)
50 - 59	1	4.00(0.00)	9	2.56(1.09)	5	3.00(0.33)
60 - 69	1	3.00(0.00)	10	3.07(0.86)	10	3.27(0.84)
sum/average	27	3.08(0.82)	90	3.02(0.82)	54	2.84(0.87)

17)보다 많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종교에 의한 차이는 남한 정착 1년 이후에 나타났다( $F=1.558$ ,  $p=0.188$ ).

**2. 보호경찰관들의 인구학적 특징과 인간관계**

이 설문에 응한 보호경찰관들의 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인간관계 점수는(표 3)에, 유형 분포는(표 4)에 나와 있다. 남자 탈북자의 보호지원은 남자 경찰관이, 여자 탈북자의 보호지원은 여자 경찰관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 설문에 응답한 경찰관의 성별 역시 탈북자 숫자와 같은 분포인 남자 139명(80.8%), 여자 33명(29.2%)이었다. 연령 대에 따른 관계평점에 있어서는 나이

가 젊을수록 더 좋은 인간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0.959$ ,  $p=0.385$ ). 그리고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관계 점수와의 관계를 보면, 경찰관이 불교도인 경우에 관계 평점(3.16)이 가장 높았고, 개신교인 경우 관계 평점(2.87)이 가장 낮았으나, 두 종교의 평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0.516$ ,  $p=0.724$ ).

탈북자들과 보호경찰관들의 각 연령대별 조합에 따른 인간관계 평점을 정리한 것이(표 5)에 있다. 여기서 보면 30대 경찰관은 주로 10대, 20대, 30대 탈북자들을 담당하였는데, 그 중 같은 30대 탈북자를 담당하였을 때 관계 평점이 가장 낮은 것(2.87)으로 나타났다. 이

**Table 6.** Human relationship score according to the age of policemen and policemen's means tried to improve the human relationship with defectors

Policemen's means to improve the human relationship	Ages of policemen(years)					
	30-39		40-49		50-59	
	Number	Score(SD)	Number	Score(SD)	Number	Score(SD)
Human kindness(인간적 접근)	15	3.27(0.83)	45	2.98(0.90)	25	2.81(0.88)
Frequent conversation(잦은 대화접촉)	5	2.80(0.65)	16	3.29(0.79)	6	3.06(0.57)
Problem solving(애로사항 해결)	2	3.00(0.00)	9	2.78(1.20)	7	2.33(0.79)
Furnishing information(남한적응 교육)	1	4.00(0.00)	7	3.10(0.94)	8	3.17(0.91)
Financial support(경제적 도움)	3	2.33(1.20)	6	2.89(0.50)	5	3.27(0.55)
Others(기타)	0		2	2.50(0.71)	2	3.00(1.41)

**Table 7.** Average score of human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biggest problems at each period

Biggest problems said by policemen	Periods					
	1-3 month <sup>a)</sup>		4-12 month <sup>b)</sup>		13-24 month <sup>c)</sup>	
	Number(%)	Score(SD)	Number(%)	Score(SD)	Number(%)	Score(SD)
Different way of thinking	8( 5.5)	3.41(0.83)	5( 4.2)	2.73(0.49)	3( 3.3)	2.55(0.50)
Anxiety and distrust	49(33.6)	2.72(0.80)	23(19.3)	2.92(0.61)	19(20.9)	2.73(0.88)
Social maladaptation	43(29.5)	2.79(0.98)	32(26.9)	2.88(0.85)	14(15.4)	2.95(0.79)
Financial difficulty	30(20.5)	3.32(0.85)	19(16.0)	3.08(0.92)	9( 9.9)	2.85(0.81)
Sudden happening	2( 1.4)	2.00(0.94)	8( 6.7)	2.50(0.79)	7( 7.7)	2.76(0.59)
Lack in will of self-support	4( 2.7)	3.08(0.41)	10( 8.4)	2.53(0.90)	13(14.3)	2.82(0.90)
Poor financial management	1( 0.7)	4.00 -	5( 4.2)	3.40(1.21)	12(13.2)	3.22(0.85)
Selfishness	0( 0.0)	- -	9( 7.6)	3.00(0.52)	10(11.0)	2.76(1.19)
Others	9( 6.2)	2.98(0.85)	8( 6.7)	2.82(0.79)	4( 4.4)	3.18(1.01)

a : ANOVA of score F=0.280, p=0.866

b : ANOVA of score F=0.723, p=0.687

c : ANOVA of score F=0.366, p=0.936

에 비하여 40대 경찰관은 전 연령대의 탈북자들을 담당하였는데 50대 탈북자를 담당하였을 때 결과가 가장 나빴다(2.56). 50대 경찰관들은 탈북자들이 20대(2.93), 30대(2.53) 등의 젊은 탈북자들과의 관계가 힘들었고 나이가 40대 이상인 사람들과는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좋았음을 알 수 있었다.

### 3. 보호경찰관이 인간관계 개선을 위하여 가장 중점을 둔 사항에 따른 관계 분석

보호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한 탈북자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하여 가장 노력한 방법은, 크게 인간적 접근(86명, 53.4%), 잦은 대화와 접촉의 시도(27명, 16.7%), 애로사항 해결(직장 소개, 병원 소개, 자원봉사자 연결 등)(18명, 11.1%), 남한 적응 교육(16명, 9.9%), 경제적 도움(경찰관이 직접 자신의 돈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등의 지원)(14명, 8.6%) 등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 개선 노력의 방법들과 보호경찰관들이

경험한 탈북자들과의 인간 관계의 결과가 평점은(표 3)에, 관계 유형은(표 4)에 나와 있다. 남한 적응·교육과 잦은 대화 접촉의 평점은 애로사항 해결 평점보다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48, 0.043).

경찰관 연령별로 선택한 인간관계 개선 시도 방법과 그 결과로서의 관계 평점을 본 것이(표 6)에 있다. 여기서 흥미 있는 결과는 각 연령대에 따라 그들이 선택한 방법의 결과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 도움을 방법으로 선택하였을 때, 30대에서는 2.33으로 가장 나쁜 결과를 보인 반면에 40대가 이 방법을 썼을 때는 2.89로 나타났고, 50대 이 방법을 쓴 경우에는 3.27로 50대의 결과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잦은 대화와 접촉의 경우, 40대가 이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평점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0대에서는 2.80으로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로 사항 해결의 경우에

**Table 8.** The most difficult things said by policemen at each period and type of human relationship

Most difficult things said by policemen at each period	Type of human relationship									
	Improved type		Aggravated type		Little changed type		Fixed type		Unstable type	
	Number	(%)	Number	(%)	Number	(%)	Number	(%)	Number	(%)
<b>1 - 3 month</b>										
Different way of thinking	5	62.5	1	12.5	0	0.00	2	25.0	0	0.00
Anxiety and distrust	28	57.1	4	8.2	7	14.3	5	10.2	5	10.2
Social maladaptation	15	34.9	6	14.0	13	30.2	3	7.0	6	14.0
Financial difficulty	11	36.7	7	23.3	4	13.3	2	6.7	6	20.0
Sudden happening	1	50.0	0	0.00	1	50.0	0	0.00	0	0.00
Lack in will of self-support	1	25.0	0	0.00	0	0.00	0	0.00	3	75.0
Poor financial management	0	0.00	1	100.	0	0.00	0	0.00	0	0.00
Selfishness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b>Others</b>										
<b>4 - 12 month</b>										
Different way of thinking	4	80.0	1	20.0	0	0.00	0	0.00	0	0.00
Anxiety and distrust	9	39.1	4	17.4	2	8.7	2	8.7	6	26.1
Social maladaptation	16	50.0	5	15.6	9	28.1	0	0.00	2	6.3
Financial difficulty	8	42.1	4	21.1	2	10.5	2	10.5	3	15.8
Sudden happening	4	50.0	1	12.5	1	12.5	1	12.5	1	12.5
Lack in will of self-support	3	30.0	1	10.0	5	50.0	0	0.00	1	10.0
Poor financial management	1	20.0	0	0.00	1	20.0	1	20.0	2	40.0
Selfishness	2	22.2	3	33.3	1	11.1	0	0.00	3	33.3
<b>Others</b>										
<b>13 - 24 month</b>										
Different way of thinking	1	33.3	0	0.00	1	33.3	0	0.00	1	33.3
Anxiety and distrust	7	36.8	6	31.6	2	10.5	2	10.5	2	10.5
Social maladaptation	6	42.9	2	14.3	3	21.4	0	0.00	3	21.4
Financial difficulty	7	77.8	1	11.1	0	0.00	0	0.00	1	11.1
Sudden happening	2	28.6	2	28.6	1	14.3	0	0.00	2	28.6
Lack in will of self-support	6	46.2	2	15.4	3	23.1	1	7.7	1	7.7
Poor financial management	6	50.0	0	0.00	4	33.3	1	8.3	1	8.3
Selfishness	3	30.0	2	20.0	3	30.0	0	0.00	2	20.0
<b>Others</b>										

50대(2.33)가 이 방법을 쓴 경우에 관계가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화와 접촉은 적게 선택하고(11.3%), 남한 적용 교육(15.0%)은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지원상의 애로 사항과 인간 관계

보호경찰관들이 탈북자들을 지원하면서 가졌던 애로 사항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사회주의적 사고방식·불안 및 불신·사회 부적응·경제적 어려움·돌출행동·자립 의지의 부족·경제 생활의 미숙·이기주의·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보호경찰관들이 탈북자들을 지원하면서 가졌던 이러한 애로 사항의 빈도와 인간관계 평점을 시기별로 정리한 내용이(표 7)에 있다. 1기에는 불안과 불신(33.6%), 사회 부적응(29.5%), 경제적 어려움(20.5%) 등이 주요 문제로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나, 2기와 3기에서는 자립 의지 부족(2기 : 8.4%, 3기 : 14.3%), 이기주의(2기 : 7.6%, 3기 : 11.0%), 돌출 행동(2기 : 6.7%, 3기 : 7.7%), 경제생활 미숙(2기 : 4.2%, 3기 : 13.2%) 등이 새로운 주요 문제로 다양하게 등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에 그 각 시기별 인간관계 점수를 보면, 1기와 2기 모두에서 인간 관계 점수를 가장 나쁘게 만든 애로사항은 돌출행동이였다(1기 : 2.00, 2기 : 2.50). 그에 비하여 사회주의적 사고 방식은 시기가 지날수록 인간관계 점수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주의적 사고 방식을 제대로 해결해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도는 덜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1기 3.32 : 2기 3.08 : 3기 2.85)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생활 미숙은 그 항목의 성격상 그것이 경찰관과의 인간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의지 부족은 특히 2기 때 심각한 인간관계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2기가 남한 사회생활을 시작 후 3개월이 지나면서 점차 남한 사회 정착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리고 불안과 불신은 전 기간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것의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었다.

각 기간별로 보호경찰관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이야기한 내용과 각 기간에 그런 애로사항을 지적한 경찰관이 탈북자와 경험한 인간관계 유형의 분포가(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적응 초기(1기)에 불안 및 불신이 문제가 된 사람들은 그 관계가 결국은 호전형으로 된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57.1%), 사회 부적응(34.9%)이나 경제적 어려움(36.7%)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호전형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었다.

## 고 찰

탈북자가 자신의 보호경찰관과 맺은 인간관계가 그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 정도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한 적응에는 그의 개인적인 성격,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사상적 적응 정도, 경제적인 성취도, 사회적 성취 정도, 사회 자원의 이용 정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소속감 정도 등 매우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16)</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탈북자가 자신의 보호경찰관과 맺은 인간 관계는 그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의 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탈북자는 자신의 보호경찰관과 맺은 인간 관계와 그 양상을 좀더 넓은 남한 사회에서도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경찰관들과의 관계 경험을 통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 양식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기회를 가지게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탈북자와 보호경찰관의 인간관계 분석은 남한 사회 적응에 있어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통계 결과는 매우 다양한 개인적 특성과 사정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사례 하나 하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보호경찰관들은 자신들이 맺은 탈북자와의 인간관계가 비교적 보통 관계였다고 생각하였고(관계 평점, 2.96),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하게 호전되었다고 보는 경우(호전형)가 가장 많았으므로(72명, 41.8%) 전체적으로 인간관계는 나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1. 탈북자의 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인간관계

결과에서 보았듯이 보호경찰관들이 담당 탈북자들과 맺은 관계에는 탈북자들의 연령대 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10대 탈북자(5명)는 숫자가 적어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경찰관들과 매우 좋은 인간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과거 난민들의 새로운 사회 적응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10대 청소년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 아주 쉽게 동화하거나 아주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9-24)</sup> 그러므로 향후 탈북 청소년들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본 연구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음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해나가야 하겠다. 본 연구는 10대 탈북자들과의 인간관계에서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마음을 트고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이 이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대 탈북자들은 초기 관계 형성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관계가 지속될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초기의 갈등을 잘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관계 호전이 비교적 빨리 올 수 있다는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0대 탈북자들은 담당경찰관들이 가장 인간관계를 가지기 힘들었던 집단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자신감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젊다는 사실에 의하여 남한 사회 적응에 있어 심리적으로 가장 많은 압박을 받는다는 사실이 이러한 인간관계 결과로 나타났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경우에는 이들이 단독 탈출자들이어서 북한에 있는 부인이나 자식 등의 가족 등에 대한 죄책감도 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가족을 데리고 온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부양 책임이 이들을 더 초조하게 만들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30대의 탈북자들에게는 이들의 이러한 사회적 심리적 갈등을 이해하면서 이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잘 제공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들과 인생 경험이 좀더 있고 인간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40대 탈북자들의 상황은 30대와 비슷한 측면이 있으나 이들은 인생 경험이 좀더 풍부하여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담당 경찰관에게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가급적 경찰관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쪽으로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인간관계 유형에서도 소변화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는 이들의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이 자신의 솔직한 심리적 고통을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0대 탈북자들의 특징은 적응 초기(1기) 인간관계 접수가 가장 나쁘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상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나 자기식 대로만 세상과 상황을 해석하려는 경향을 가져 그것을 극복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30대, 40대와는 달리, 새로운 기술을 배워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등의 사회적 압력이 비교적 적고, 가족들이 함께 들어온 경우가 많아, 그들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사람들도 많으므로, 3기 정도가 되면 경찰관들과 편안한 관계를 가져 관계가 급격히 좋아질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 50대 탈북자들과는 특히 만남 초기에 매우 예의바르고 정중한 태도로 신뢰감과 호감을 주도록 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그들과의 관계 호전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60대 탈북자들의 특징은 초기 관계는 매우 좋으나 그 정도에 큰 변화가 없어 3기에서는 상대적으로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담당 경찰관들과 굳이 나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서 초기 관계는 잘 가지지만, 굳이 경찰관에게 의존하여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 할 것도 없고, 나름대로 이미 형성된 사고 방식에 고정되어 살게 되므로, 그 처음 관계가

별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면서 3기까지 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60대 탈북자를 지원할 때에는, 이들과의 초기 관계가 좋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돕겠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하겠다.

탈북자들에게 있어 가장 낮은 학력인 인민학교 출신들이 가장 많은 인간관계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적인 자원들을 가장 적게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직장을 가지기도 어렵고,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를 이해하고 적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할 때는 남한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침착하게 돕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것은 향후 탈북자들의 학력에 따라 그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에 차이가 있어야 하며, 특히 학력이 낮은 집단에 대한 더 큰 배려의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 보인다 할 수 있다.

탈북자들의 탈출 경로에 따라 인간관계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결과였다. 북한에서 바로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이 더 좋은 인간관계를 보인 것은 탈출 과정이 비교적 짧았고, 그에 따라 정신적 갈등과 충격을 받는 과정이 적었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다른 탈북자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도 적고 비교의식도 적은 가운데에 바로 남한 사회 적응을 시작한 것과 연관되어 보였다. 반대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경유한 탈북자들의 경우, 탈출과 남한 입국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장기간에 거친 사람들일수록 경찰관과의 관계에서도 호전이 느리며, 전체적으로 관계 형성도 더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과거 난민 연구들에서 난민 탈출 과정에 많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정착 사회에서의 적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낸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25-29)</sup>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따른 인간관계에서, 전체 탈북자의 58.9%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여 탈북자들의 남한 생활과 종교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정착 첫 1년보다 2년째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종교가 장기적으로 탈북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각 종교단체들은 이러한 탈북자들의 상황과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이들

의 남한 사회 적응을 좀더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2. 보호경찰관의 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인간관계

본 연구의 결과는 보호경찰관들의 연령대에 따라 그들이 탈북자들과 맺는 인간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30대 경찰관의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비교적 좋은 관계를 가지나 4개월 이후 1년까지에 생기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여 처음 3개월 때보다도 더 호전되는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유형에서도 불안정형이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탈북자들과의 인간관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은 3기에는 가장 좋은 인간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급적 같은 연령대의 30대 탈북자들을 담당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경찰관의 경우, 탈북자들과의 인간관계가 가장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들이 비교적 자신들이 가진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엄격한 태도를 계속 유지한 것과 연관되어 보였다. 그러므로 40대 경찰관의 경우에는 인간관계에 좀더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은 탈북자의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였다. 50대의 경찰관인 경우, 특히 첫 3개월 동안 탈북자들과의 관계 형성에 큰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50대 경찰관들은 처음에 탈북자들과의 만남에서 가급적 부드럽고 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려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그 기간만 지나면, 그 후에는 탈북자들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30대 경찰관들이 10대, 20대 탈북자를, 40대 경찰관들이 30대, 40대 탈북자들을, 50대 경찰관들은 50대, 60대 탈북자들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보호경찰관들이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것과 그것이 인간관계에 미친 결과

보호경찰관들이 시도한 내용들은 크게 다섯 가지(인간적 접근, 잦은 대화접촉, 애로사항 해결, 남한 적응 교육, 경제적 도움)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 개선 노력은 그 성격과 결과로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직접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다. 즉 구체적으로 탈북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고 경제적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것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 따른 인간관계 경험은 사용되었던 방법 중 가장 나빴던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많은 경우에 탈북자의 요구가 주도적이고 보호경찰관은 그것에 끌려가는 식의 지원 노력을 하였는데, 그것이 많은 한계를 가졌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인지적 노력이다. 이것은 탈북자들의 당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려고 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고 그저 탈북자들을 같은 동포, 가족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의 물리적 노력에 비하여 그 행동성이 떨어지는 특징을 가진다. 이런 경우 보호경찰관의 입장에서는 크게 좌절할 것도 없고, 크게 탈북자와 사이가 나빠질 이유도 없기 때문에 관계는 보통 정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교육행동적인 노력이다. 이것은 첫 번째의 물리적 노력과 행동 지향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하나 탈북자의 애로 사항 해결 요청에 끌려 다닌 것이 아니라 보호경찰관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남한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교육을 위주로 교육 행동을 하거나 그들과 따로 시간을 내어 대화를 하며 교육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차이를 가진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보아 탈북자들과의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들었다.

물론 여기에는 인간적인 정보라는 이치적인 면을 중시하는 등의 보호경찰관의 개인적 성향과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연구는 보호경찰관이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 보다 “교육자”로서 역할 규정을 하는 것이 더 성공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에는 어떤 형태로든 “애로사항 해결”이라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탈북자 지원 시민단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 경찰관은 탈북자가 그런 단체와 연관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는 보여주었다.

## 4. 보호경찰관들의 지원상의 어려운 점과 인간관계

탈북자들이 보호경찰관에 대하여 가지는 “불안과 불신”은 초기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탈북자와의 관계에서 첫 1년 동안 이러한 불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탈북자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그 방법으로는 그들과의 많은 대화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탈북자들이 경찰관과 남한 사회에 대하여 오해 또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지 않도록 정확하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회주의적 사고 방식”은 1기에는 인간관계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시기가 지나감에 따라 점점 더 관계를 나쁘게 하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경찰관들은 탈북자들이 이런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고착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본주의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이들에게 솔직한 남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살면서 실제로 겪는 일들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일을 처리할 때 생긴 문제의 원인이 된 사회주의적 사고 방식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특징은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같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돌출 행동”은 정착 초기에는 가장 큰 인간관계 악화 원인이 되었으므로, 경찰관들은 탈북자들과의 첫 만남 기간 동안에 이러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기에는 이들의 돌출 행동이 있어도 그것이 경찰관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의 “이기주의”는 2기와 3기가 될수록 경찰관과의 관계를 더욱 더 나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들 탈북자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적응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자신들을 담당할 경찰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 설문에 대한 정확한 응답률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전체 탈북자들의 숫자와 그 동안 2년간의 보호를 받은 탈북자들의 숫자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 설문의 응답률은 매우 높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그 정확한 설문 응답률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시행할 때 이런 종류의 문제는 얼마간 계속되리라 생각한다.

둘째,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인 것인데 경찰관의 응답만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 응답 경찰관에 대하여 탈북자가 평가한 인간관계 점수가 포함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인간관계를 맺었던 한쪽의 의견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해석상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설문의 배부와 회수를 개인적인 우편 설문으로 하지 못하고 경찰 조직을 통하여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비록 응답자 개인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설문 작성에는 배려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설문 방법에 의하여 응답에 영향이 있었을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적 상황에서 탈북자에 관한 연구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 역시 얼마간 지속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탈북자 보호경찰관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탈북자들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이러한 적응 지원이 좀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보호경찰관들의 탈북자 지원 업무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보호경찰관이 탈북자들의 신변 보호에서부터 취업 알선, 주택 구하는 것, 남한 사회 적응 교육, 애로 사항 해결, 외로움 해결을 위해 친구가 되어주는 것 등까지의 지나치게 많고 광범위한 영역 활동을 하는 것은 보호경찰관들에게 역할 혼란을 주고 그에 따라 인간관계의 악화가 생겨 보호경찰관으로서의 활동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주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아 경찰관의 역할은 1) 탈북자들의 신변 보호 역할, 2) 탈북자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의 전문 프로그램에 탈북자들을 연결시켜주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조정자 역할, 3) 가장 가까이에서 탈북자들의 생활 지도 안내 역할로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보호경찰관들의 업무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한 보완조치로서 시민단체들의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이 전문화되고 지속성을 가지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즉 탈북자 지원 시민단체들이 단순히 명절 때 탈북자 위로잔치를 열어 준다든지, 생활 지원금 등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 의료문제, 법률문제, 취업문제, 자녀 교육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시민단체 별로 그 활동 내용을 전문화시킨다면 탈북자들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현재 보호경찰관들이 지원상 가지는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사는 기간이 변해감에 따라 그들의 입장, 필요 등도 달라져 간다. 그러므로 탈북자 적응 지원을 하는 보호경찰관이나 시민 단체들은 변

화하는 탈북자들의 요구에 민감하여야 하고 그것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와 지원 체계를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탈북자의 개인적 특성과 남한의 지원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이 좀더 과학적으로 잘 분석되어 최선의 관계가 경험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탈북자와 보호경찰관의 연령, 성별, 학력, 탈출 경로, 종교 등에 따라 그들이 서로 맺는 인간관계가 다르며, 좀더 나은 관계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점이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50년 이상의 분단과 다른 체제 하에서의 삶은 남북한 사람들을 이질화시켜 놓았다. 이 남북한 사람들이 통일 과정에서 이질화를 얼마나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는 향후 성공적인 통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가 그러한 극복을 위하여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경찰청에 감사드린다.

## 참고문헌

- 1) 통일부(1999) : 북한이탈주민 지원현황
- 2) 김명세(1996) : 탈북자의 사회 적응은 민족 화합의 예비과정. 탈북자들의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토론회
- 3) 김병로(1994) :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정책자료
- 4) 민병천(1980) :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적응과정 실태조사.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 5) 민성길, 전우택(1995) : 사람의 통일 - 정신의학적 접근. 송자, 이영선 편. 통일 사회로 가는 길. 서울. 오름출판, pp72-110
- 6)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1996) :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실태조사 및 개선 방향. 민족통일연구원
- 7) 오혜정(1995) : 귀순북한동포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 -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석사학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 8) 윤덕용, 강태규(1997) :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및 대책 : 탈북자들의 경제문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1(2) : 169-205
- 9) 윤여상(1994) : 귀순북한 동포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 10) 윤여상(1995) : 남한의 귀순동포에 대한 정책 연구. 영남정치학회보 제 5호.
- 11) 이정우, 김형수(1996) :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2) 이종훈(1996) : 남한 이주 북한 동포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현안분석 제 119호. 국회입법조사분석실
- 13) 전우택(1995) : 통일 후 예상되는 북한 주민들의 통일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난민, 한국인 이민자, 북한 귀순자를 중심으로. 통일원 95 북한 및 통일 연구 논문집, pp1-66
- 14) 전우택(1997a) :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2) : 109-167
- 15) 전우택(1997b) : 난민들의 정신건강과 생활 적응에 대한 고찰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전망과 대책. 신경정신의학 36(1) : 3-18
- 16) 전우택(1999) :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심리적 갈등 구조 및 그에 대한 해결 방안.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탈북자 관련 워크샵 발표 논문(1999년 11월 30일)
- 17) 전우택, 민성길, 이만홍, 이은실(1997) : 북한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1) : 145-161
- 18) 제성호(1996) : 북한 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형사정책연구, 제 7권 1호
- 19) Harding RK, Looney JG(1977) : Problems of South East Asian in a refugee camp. America Journal of Psychiatry 134 : 407-411
- 20) Beiser M, Barwick C, Berry JW, Fleming JAE, Bemak F, Arroyo W(1988) : After the Door Has Been Opened(Report of Task force on Mental Health Issues Affecting Immigrants and Refugees). Ottawa, Multiculturalism & Citizenship and Health & Welfare
- 21) Berry JW, Kalin R, Taylor DM(1977) : Multiculturalism and Ethnic Attitudes in Canada. Ottawa, Government of Canada
- 22) Dion K, Earn B, Yee P(1978) : The experience of being a victim of prejudice : An experimental approach. Inte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3 : 290-303
- 23) Murphy HBM(1965) : Migration and the major mental disorders : A reappraisal. In : Mobility and Mental Health. ed by MB Kantor, Springfield, Thomas
- 24) Westemeyer J(1989) : Psychiatric Care of Migrants : A Clinical Guid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25) Chung RC(1991) : Predictors of distress among Southeast Asian refugees group and gender differences. Paper presented at the Asian American Psy-

- chological Association Convention in San Francisco
- 26) Hinton WL, Chen YCJ, Du N, Tran CGT, Lu FG, Miranda J, Faust S(1993) : DSM-III-R disorders in vietnamese refugees. *J Ment Dis* 161 : 113-122
- 27) Meinhardt K, Tom S, Tse P, Yu CY(1986) : Southeast Asian refugees in the "Silicon Valley" : The Asian Health Assessment Project. *Amerasia* 12 : 43-65
- 28) Peters UH(1991) : Uber das stasi-verfolgten-syndrome. *Fortschr Neurol Psychiat* 59 : 251-265
- 29) Rumbaut R(1985) : Mental health and the refugee experience : A comparative study of Southeast Asian refugees. In : *Southeast Asian Mental Health : Treatment, prevention, services, training and research*. Ed. by Owan TC, Bethesda MD. NIMH

ABSTRACT —————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Vol 40, No 2, March, 2001* —————

**An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 Supporting Experience of South Korean Policemen in Charge**

Woo Taek Jeon, M.D., Duk Ryong Yoon, M.D., Sung-Kil Min, M.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erience of South Korean policemen who are in charge of supporting the North Korean defectors' adaption to South Korean society for 2 years.

**Methods** : Written-form survey questionnaire were sent to all policemen who were in charge of defectors with the help of the National police bureau.

**Results** : 172 policemen answered to survey questionnaire. There was no difference of human relationship score according to the defectors' sex, age, academic career. But defectors with low academic career showed bad human relationship as time went by. The type of human relationship change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defectors' age. Defectors who entered to South Korea directly from North Korea in short period had a better relationship in comparison with those who escaped to China or other third countries and stayed there for a long time to get a chance to enter to South Korea. As the policemen are younger, the relationship scores were better. But when some problem occurred in their relationship, younger policemen were less successful in solving the problem. There were many kind of efforts of policemen to improve the human relationship and it showed that the education-oriented effort is more effective and successful than direct problem-solving effort.

**Conclusion** : This study showed that the human relationship of defectors and policemen in charge are affected by some demographic factors and defection routes and the types of efforts of policemen to improve the human relationship. It was suggested that the role of policemen in charge of defectors should be more well-defined, and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 need to have more continuous and specified program to help defectors' adaptation. Finally, the importance of continuing scientific researches about defectors' adaptation was emphasized.

**KEY WORDS** : North Korea defectors · Adaptation · Policemen.